2018 서울시 지방직 9급

(2018년 3월 24일 시행)

해설 : 아모르이그잼 학원 이명호 교수

■ 총평

시험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상위권 학생들의 실력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시험이 어렵다면서 한 쪽에서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고득점'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수험생들이 있다. 수험생들은 대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접근 가능한 책과 강의도 넘쳐난다. 그런데도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누군가는 '들쭉날쭉' 점수를 얻고, 누군가는 꾸준히 고득점을 유지한다. 이제는 개별 문제로의 접근 방법을 연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로 넘어가야 한다. 학원도, 선생도 연구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 시험의 주된 당사자인 수험생들이 스스로 이 부분을 연구해야 한다. 문제가 토할 것 같이 나와도 점수가 떨어지지 않는 학생들의 그 '비밀'은 무엇인가의 문제 말이다.

■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나?

구분	시대 상세	출제된 내용	자료 제시	A형
고대	선사 시대	신석기 시대 유적지와 그 특징		2번
	삼국 시대	고구려 3~5세기 사건의 순서		8번
	통일신라	진성여왕 대의 주요 사건	O	18번
	발해	발해 문왕의 업적	O	19번
근세	조선 전기	조선 전기 건축물		14번
	조선 후기	「유재론」의 저자(허균)	O	13번
	조선 후기	이익의 토지개혁론과 저술	O	12번
	조선 종합	백과사전 편찬 순서		3번
	조선 종합	조선시대 편찬 서적의 특징		9번
	조선 종합	비변사	O	20번
근대	개항·개화기	개항 이후 일·청과 맺은 조약	O	10번
	대한제국	러일전쟁의 전개 순서		5번
	대한제국	홍범도의 업적	O	6번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의 적용 시기	O	1번
	일제강점기	영화(아리랑)		4번
	일제강점기	의열단의 활동	O	7번
	일제강점기	신간회의 활동		11번
현대	-	카이로 회담	O	16번
	-	북한정권 수립 과정		17번
종합	고려-조선	지방 행정 제도		15번

■ 문제 해설

1. <보기>는 일제가 제정한 법령의 일부이다. 이 법령에 의해 처벌된 사건이 아닌 것은?

<보기>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또는 결사의 임원, 그의 지도자로서의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중략)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결사에 가입하는 자, 또는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돕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①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사건
② 조선공산당 사건
③ 수양동우회 사건
④ 조선어학회 사건

1. 정답 ①

이 사료는 1925년 4월 법률 제46호로 공포된 「치안 유지법」이다. 「치안 유지법」은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사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그 미수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천황제'에 근거한 일본의 '국체'와 '사유 재산제도'를 위협하는 존재, 공산주의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본국에서는 이 법을 통해 주로 공산주의 운동과 그 영향 하에 있던 노동 운동, 사회 운동을 처벌하였다. 식민지였던 조선에서는 이와 더불어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법률로도 기능하였다.

이 법령에 따라 처벌된 사건은 ② 조선공산당 사건(1925년, 1926년), ③ 수양동우회 사건(1937년), ④ 조선어학회 사건(1942년) 등이다. 그러나 ①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투탄 사건은 「치안 유지법」(1925년)이 공포되기 전인 1923년에 발생하였다.

치안유지법(법률 제46호) 제1조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 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사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죄는 벌한다. 제2조 전조 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3조 제1조 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4조 제1조 제1항의 목적으로 소요·폭행, 기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를 선동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5조 제1조 제1항 및 전 3개조의 죄를 범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거나 그 신청 또는 약속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정을 알고 공여를 받거나 그 요구 또는 약속을 한 자도 같다. 제6조 전 5개조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7조 이 법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법의 시행 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1923년 칙령 제403호는 폐지한다.

2. <보기>의 유적들이 등장한 시대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서울 암사동 유적	• 제주 고산리 유적
• 양양 오산리 유적	• 부산 동삼동 유적

① 움집을 청산하고 지상 가옥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② 벼농사를 위하여 각종 수리시설이 축조되었다.
③ 조개무지(패총)를 많이 남겼다.
④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시설이 발전하였다.

2. 정답 ③

<보기>의 유적은 모두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이다.

③ 조개무지는 조개껍질이 지닌 석회질(石灰質)로 인해 그 안에 있는 토기·석기 및 짐승의 뼈·뿔 등이 보전되어 있는 문화재이다. 조개무지는 농경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만들어졌지만, 조개무지가 '많이' 남겨진 시기는 신석기 시대부터이다. 조개더미는 조개류를 채집하여 먹고 버린 것으로서, 당시 여전히 '채집' 활동이 식량을 얻는 주요한 방법이었음을 보여준다.

① 지상 가옥이 주로 나타나는 시대는 철기 시대이다. 신석기 시대에는 지상 가옥이 흔하게 등장하지 않을뿐더러, '움집을 청산'하였다는 표현은 신석기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다.

② 벼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청동기 시대이지만, 각종 수리시설 즉 저수지가 축조된 때는 철기 시대이다.

④ 정복 활동이 이루어지던 청동기 시대부터 환호, 목책 등 방어시설이 발전하였다.

3. <보기>의 백과사전(유서)을 편찬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대동운부군옥	ㄴ. 지봉유설
ㄷ. 성호사설	ㄹ. 오주연문장전산고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ㄷ → ㄹ → ㄱ
③ ㄱ → ㄷ → ㄴ → ㄹ　④ ㄱ → ㄹ → ㄷ → ㄴ

3. 정답 ①

「대동운부군옥」은 16세기 말, 「지봉유설」은 17세기 초, 「성호사설」은 18세기 중엽, 「오주연문장전산고」는 19세기에 편찬되었다. 편찬연대가 명확하지 않은 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저자의 생존 시기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므로 분명히 선후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ㄱ.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은 우리나라[大東]의 지리, 역사, 인물, 문학, 동식물 등의 다양한 주제를 운별로 배열한 백과사전[韻府群玉]이다. 이 책은 선조 때(1589년) 권문해가 편찬하였다.

ㄴ. 「지봉유설(芝峰類說)」은 이수광[芝峰]이 쓴 백과사전[類說]이다. 이수광은 광해군에 의해 영창대군이 죽임을 당하는 계축옥사가 일어나자 관직을 버리고 은거 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저술이 광해군 때(1614년)의 「지봉유설」이다.

ㄷ. 「성호사설(星湖僿說)」은 이익[星湖]이 쓴 자잘하고 사소한 이야기들[僿說], 즉 백과사전이다. 이 책은 천지문(天地門), 만물문(萬物門), 인사문(人事門), 경사문(經史門), 시문문(詩文門)의 다섯 문(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이익이 40세 전후부터 지속적으로 기록한 것이므로 정확한 연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익(1681~1763)의 말년에 정리된 것으로 계산하면 18

세기 중엽을 편찬 시기로 보면 되겠다.
ㄹ.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는 이덕무의 손자인 이규경[五洲]이 쓴 백과사전이다. 그 저술 연대가 명확하지 않으나, 이규경(1788～1863[추정])의 생몰년을 고려해 볼 때, 19세기 헌종 대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4. <보기>는 일제강점기 당시 흥행에 성공하였던 영화의 줄거리이다. 이 영화가 상영되던 시기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영진은 전문학교를 다닐 때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왜경에게 고문을 당해 정신이상이 된 청년이었다. 한편 마을의 악덕 지주 천가의 머슴이며, 왜경의 앞잡이인 오기호는 빚 독촉을 하며 영진의 아버지를 괴롭혔다. 더욱이 딸 영희를 아내로 준다면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다고 회유하기까지 하였다. (중략) 오기호는 마을 축제의 어수선한 틈을 타 영희를 겁탈하려 하고 이를 지켜보던 영진은 갑자기 환상에 빠져 낫을 휘둘러 오기호를 죽인다. 영진은 살인혐의로 일본 순경에게 끌려가고, 주제곡이 흐른다.

① 역사학: 민족주의 역사가들 사이에서 이른바 조선학 운동이 시작되었다.
② 문학: 민중생활에 관심을 기울인 신경향파 문학이 대두하여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문학으로 발전했다.
③ 음악: 일본 주류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은 트로트 양식이 정립되었다.
④ 영화: 일제는 조선영화령을 공포하여 영화를 전시체제의 옹호와 선전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4. 정답 ②
정신이상자 '영진'과 악덕 지주의 머슴 '오기호'가 등장하는 영화는 나운규가 감독하고 직접 출연도 했던 '아리랑'이다. 나운규는 '영진'을 연기했다. 문제의 자료의 마지막 문장에서 '주제곡이 흐른다'고 했는데, 그 주제곡이 '아리랑'이었다. 이 영화는 1926년부터 약 2년간 상영되면서 약 1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다.
② 1926년을 전후하여 유행하였던 문학은 신경향파 문학이었다. 신경향파 문학은 3·1 운동 이후 노동자, 농민들이 활발히 조직화되는 추세에서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등장하였다. 이들은 순수 예술을 표방하는 문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문학이 현실과 생활을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① 문일평, 정인보, 안재홍 등이 주도한 조선학 운동은 1930년대에 시작되었다.
③ 일본의 대중음악(엥카)의 영향을 받아 트로트 양식이 정립된 시기는 1930년대이다.
④ 일제가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을 탄압하기 위해 조선 영화령을 공포한 때는 1940년이다.

5. <보기>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일본군이 인천항에 정박한 러시아군함 2척을 공격
ㄴ. 대한제국정부의 국외중립 선언

ㄷ. 일본군이 러시아에 선전포고 ㄹ. 한일의정서 체결

① ㄱ - ㄹ - ㄴ - ㄷ　　② ㄴ - ㄱ - ㄷ - ㄹ
③ ㄱ - ㄷ - ㄹ - ㄴ　　④ ㄴ - ㄹ - ㄷ - ㄱ

5. 정답 ②

ㄴ. 대한제국정부의 국외중립 선언은 러일전쟁 직전인 1904년 1월 21일에 이루어졌다. 1904년 러일 전쟁의 전운이 감돌자 대한제국의 내장원경이자 탁지부대신서리인 이용익은 중립화 추진 세력들과 연계하여 국외 중립화 선언을 준비하였다. 이들은 벨기에 고문과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어학교 등의 외국어 교사들과 연합하여 1904년 1월 21일 국외중립을 선언하였다. 고종 황제는 중립선언으로 한국이 전쟁의 위험에서 탈피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중립 선언에 대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공사들이 접수를 통보하자 이제 독립 불가침을 승인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에 주재한 영국공사 조던(J. N. Jordan)은 일본과 러시아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 정부는 서울을 먼저 점령하는 측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일 것이 분명하므로 한국의 중립 선언이란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예견대로 일본이 먼저 서울을 점령하여 이로써 대한제국은 일본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ㄱ. 일본군이 인천항에 정박한 러시아군함 2척을 공격한 때는 1904년 2월 8일이다. 그 과정은 이렇다. 일본 연합함대는 1904년 2월 6일 사세보항을 출발, 러시아 함대가 머물고 있는 인천과, 황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거점인 요동반도의 여순으로 향했다. 인천으로 향한 제4전대는 육군 운송선 3척을 호송, 이들을 한반도에 상륙시키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일본 함대는 2월 8일 인천에 정박 중인 러시아 순양함 2척을 공격, 침몰시키고 수송선은 상륙작전을 완료했다. 러일전쟁은 이같이 인천 앞바다에서 시작되었다. 여순으로 향한 연합함대는 2월 9일 심야에 러시아 함대를 기습하여 전함 2척, 순양함 1척을 좌초시켰다.

ㄷ. 일본군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한 때는 1904년 2월 10일이다. 러시아도 같은 날 일본에 전쟁을 선언했다.

ㄹ. 한일의정서는 1904년 2월 23일에 체결되었다. 한일의정서는 러일 전쟁을 일으킨 직후 일본이 한국을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삼으려고 공수동맹(攻守同盟)을 전제로 하여 체결한 외교문서이다.

6. <보기>의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그는 평안도 양덕 사람으로 (중략) 체격이 장대하고 지기가 왕성하였는데, 비록 글은 배우지 못하였으나 천성적인 의협심이 있어, 남을 돕는 일을 급무로 삼은 연유로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 1907년 겨울에 차도선, 송상봉, 허근 등 여러 사람들과 의병을 일으켜 (중략) 전투를 벌였다.

① 산포수들을 모아 의병을 구성하였다.
② 주요 활동지는 함경도 삼수, 갑산 등지였다.
③ 1920년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④ 13도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진공작전을 개시하였다.

6. 정답 ④

홍범도(1868~1943)는 평안북도 양덕 출신으로 1907년에 처음으로 의병에 가담한 이래 만주와 간도 지방에서 독립군을 양성하며 일본군과 싸웠던 독립운동가이다. 홍범도는 1907년 11월 차도선, 태양욱, 송상봉, 허근 등과 함께 산포수를 규합하는 한편 의병대와 연합전략을 펼쳤다. 주요 활동지는 삼수, 갑산이었으며, 대표적인 전투는 후치령 전투(1907)이다. 홍범도는 이후 1920년에 국민회군, 군무도독부군과 연합하여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이 아니라, 북로군정서군과 연합하여 청산리대첩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④ 서울진공작전이란 1908년 1월 13도 의병연합군이 서울 탈환을 목표로 진행한 전투 작전이다. 1908년 1월 허위가 이끄는 의병 부대가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육박하였다. 이 부대는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는 13도 창의군의 선발대였다. 13도 창의군은 전국에서 모인 의병들이 편성한 연합부대였다. 다만, 이 당시 홍범도는 해외 독립 운동 기지 건설을 위해 간도를 거쳐 연해주로 망명하였으므로 서울진공작전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7. <보기>의 선언문을 지침으로 삼은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 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중략) 혁명의 길은 파괴부터 개척할지니라. 그러나 파괴만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려고 파괴하는 것이니, 만일 건설할 줄을 모르면 파괴할 줄도 모를지며, 파괴할 줄을 모르면 건설할 줄도 모를지니라. 건설과 파괴가 다만 형식상에서 보아 구별될 뿐이요 정신상에서는 파괴가 곧 건설이니, 이를테면 우리가 일본세력을 파괴하려는 것이, (하략)

① 오성륜, 김익상, 이종암이 상해 황포탄에서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저격하였다.
② 이봉창이 동경에서 일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던졌다.
③ 백정기, 이강훈, 원심창이 상해 육삼정에서 일본공사 아리요시를 암살하려고 시도하였다.
④ 윤봉길이 상해 홍구공원에서 열린 일본의 천장절 행사에 폭탄을 던졌다.

7. 정답 ①

제시된 자료는 신채호가 1923년 1월 의열단(義烈團)의 독립운동 이념과 전략을 이론화해 발표한 '조선 혁명 선언'이다. '의열단 선언'이라고도 한다.

① 1922년 3월 28일, 의열단원 김익상, 오성륜, 이종암이 상하이 황포탄(黃浦灘)에서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저격하였으나, 실패하고 체포되었다. 4월 1일에 오성륜은 탈옥하였다.

②, ④ 1932년 이봉창은 일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던졌으며, 윤봉길은 훙커우 공원에서 열린 천장절 행사에 폭탄을 던졌다. 이봉창과 윤봉길은 모두 한인애국단 소속이다.

③ 1933년 3월 백정기, 이강훈, 원심창이 상해 육삼정에서 일본공사 아리요시를 암살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를 '상해 육삼정 의거'라고 한다. 백정기 등은 남화한인청년연맹(흑색공포단)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8. 고구려와 관련된 <보기>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평양천도	ㄴ. 관구검과의 전쟁
ㄷ. 고국원왕의 전사	ㄹ. 광개토왕릉비 건립

① ㄷ - ㄱ - ㄹ - ㄴ　② ㄱ - ㄷ - ㄴ - ㄹ
③ ㄴ - ㄷ - ㄹ - ㄱ　④ ㄹ - ㄴ - ㄱ - ㄷ

8. 정답
ㄴ. 동천왕과 관구검과의 전쟁(244년)
ㄷ. 평양성 전투에서의 고국원왕의 전사(371년)
ㄹ. 장수왕의 광개토왕릉비 건립(414년)
ㄱ. 장수왕의 평양 천도(427년)

9. 조선시대에 편찬된 서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경국대전』 : 조선의 통치 규범과 법을 정리하였다.
ㄴ. 『동문선』 :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하였다.
ㄷ. 『동의수세보원』 : 중국과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족사 인식을 확대하였다.
ㄹ. 『금석과안록』 :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ㄹ

9. 정답 ③
ㄱ.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이 시작되어 성종 때 완료·반포된 조선의 기본법전으로, 조선의 통치 규범과 법을 정리하였다.
ㄹ. 1816년 김정희가 김경연과 함께 북한산비를 조사하고, 이듬해 조인영과 자세히 조사하여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금석과안록」은 북한산비의 비문을 판독하여 고증한 금석문 연구서이다. 이 책에는 북한산비 뿐만이 아니라 황초령비에 대한 비문 고증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ㄴ. 「동문선」은 1478년 성종의 지시에 따라 서거정 등이 우리나라 역대의 명문(名文)과 명시(名詩) 등을 선별·수록해 편찬한 시문선집이다. /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하였다'는 표현에 어울리는 의서는 세종 때 편찬된 「향약집성방」이다.
ㄷ. 「동의수세보원」은 1894년에 이제마가 사상 의학(四象醫學)을 바탕으로 저술한 의서이다. / '중국과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족사 인식을 확대하였다'는 표현에 어울리는 역사서는 한치윤이 쓴 「해동역사」이다.

10. <보기>는 개항 이후 각국과 맺은 조약이다. ㉠과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보기>

㈎ 조선국은 ㉠ 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금후 양국이 화친의 성의를 표하고자 할진대 모름지기 서로 동등한 예의로써 상대할 것이며 추호도 경계를 넘어 침입하거나 시기하여 싫어함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 을 우대하는 후의에서 나온 것인 만큼 다른 각국과 일체 균점하는 예와는 같지 않으므로 여기에 각항 약정을 한다.

① ㉠ 인근국 - ㉡ 속방
② ㉠ 자주국 - ㉡ 우방
③ ㉠ 인근국 - ㉡ 우방
④ ㉠ 자주국 - ㉡ 속방

10. 정답 ④

㈎ '조선국은 자주국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강화도 조약의 '제1관'을 시작하는 선언이다. 1876년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인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이며, '병자수호조규'라고도 한다. 그 중 제1관은 가장 주목받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기한 것 자체가 일본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근대 조약에서는 조약국의 대내외적 지위를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명시한 것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인하려는 의도로, 조선 문제에 청국의 개입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후의(뜻)에서 나온 것'이라는 부분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서문에 포함된 문구이다. 1882년 조선의 주정사 조영하와 청국의 직예총독 이홍장 사이에 조선과 중국 양국 상인들의 무역 통상을 규정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조선이 중국의 속방임을 강조하려 했으며, 그 명칭도 '조약'이 아닌 '장정'이라 하여 조선의 청국에 대한 종속성을 나타내려 하였다.

11. <보기>의 단체가 존속한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 아닌 것은?

<보기>

- 사회주의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계열의 합작으로 구성되었다.
- 설립 당시 회장은 이상재, 부회장은 홍명희가 맡았다.
- 전국에 140여 개소의 지회를 두고, 약 4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① 광주학생독립운동
② 원산총파업
③ 단천산림조합시행령 반대운동
④ 암태도소작쟁의

11. 정답 ④

'사회주의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계열의 합작으로 구성'되었고, 설립 당시 회장이 '이상재', 부회장이 '홍명희'였으며, 전국에 '140여 개소의 지회' 및 '약 4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던 단체는 신간회이다. 신간회가 '존속한 기간'은 1927년부터 1931년까지이다. ①, ②, ③은 단순히 이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모두 신간회가 지원한 사건들이다.

①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신간회 광주지회는 즉각 이를 중앙본부에 보고하였고, 이튿날 광주학생운동 봉기에 깊이 관여한 신간회 광주지회 상무간사 장석천(張錫天)이 변장하고 신간회 본부를 방문해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동기와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신간회 본부는 11월 5일 중앙상무위원회를 열고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상조사와 성원을 위해 중앙집행위원장 허헌, 재정부장 김병로, 서무부장 황상규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② 신간회 중앙본부는 1929년 1월 함경남도 원산에서 노동자들의 '원산 총파업(元山總罷業)'이 일어나자 신간회 원산지회로 하여금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본부에서도 변호사협회 회장 이인(李仁)을 원산에 파견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케 하였다. 신간회 원산지회는 적극적으로 '원산총파업'에 개입하여 한국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했으며 인천으로부터 온 일제의 국수회원(國粹會員)의 퇴거를 요구하다가 간부들이 체포당하기도 하였다. 신간회 인천지회도 일제가 인천에서 노동자들을 모집하여 원산에 보내려는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활동하다가 간부들이 연행되어 구류처분을 받았다. 전국 각지의 신간회 지회들은 원산 노동자들에게 전보를 보내어 원산총파업을 성원하였다.
③ 1929년 7월부터 함경남도 단천(端川)에서 농민들이 일제의 산림조합 설치를 반대하는 대대적 운동을 일으켜 마침내는 일제 군청과 경찰서를 습격했으며, 일제 경찰이 발포하여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60여 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신간회는 본부 중앙상무집행위원이며 신간회 전(前) 단천지회장인 이주연을 단천에 파견하여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고 농민들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도록 하였다. 또한 신간회 단천지회는 일제 산림조합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④ 암태도 소작 쟁의는 암태도의 소작인이 암태도 소작회(岩泰島 小作會)를 조직해, 약 1년간에 걸쳐 암태도 지주 문재철과 이를 비호하는 일제에 대항한 소작 쟁의이다. 1923년 8월부터 1924년 8월까지 있었던 사건이므로, 신간회 존속 기간 이전이다.

12. <보기>의 내용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해서 토지 몇 부(負)를 한 호의 영업전으로 한다. 그러나 땅이 많은 자는 빼앗아 줄이지 않고 미치지 못하는 자도 더 주지 않으며,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천백 결이라도 허락해 주고, 땅이 많아서 팔고자 하는 자는 다만 영업전 몇 부 이외에는 허락한다.

① 『목민심서』를 저술하는 등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② 발해사를 우리나라 역사로 체계화할 목적으로 『발해고』를 저술하였다.
③ 전국의 자연환경과 인물, 풍속 등을 정리한 『택리지』를 저술하였다.
④ 천지·인사·만물·경사·시문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를 백과사전식으로 소개·비판한 『성호사설』을 저술하였다.

12. 정답 ④
제시된 자료는 '영업전' 이외의 토지만 매매 가능한 내용으로 보아 이익이 주장한 한전론이다. 이익은 천지·인사·만물·경사·시문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를 백과사전식으로 소개·비판한 「성호사설」을 저술하였다.

①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저술하는 등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② 유득공은 발해사를 우리나라 역사로 체계화할 목적으로 「발해고」를 저술하였다.
③ 이중환은 전국의 자연환경과 인물, 풍속 등을 정리한 「택리지」를 저술하였다.

13. <보기>는 어느 책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책을 저술한 사람은?

<보기>
하늘이 재능을 균등하게 부여하는데 관리의 자격을 대대로 벼슬하던 집안과 과거 출신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니 항상 인재가 모자라 애태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노비나 서얼이어서 어진 인재를 버려두고, 어머니가 개가 했으므로 재능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① 이황 ② 이이
③ 허균 ④ 유형원

13. 정답 ③
광해군 당시 문신이자 문인이던 허균(1569~1618)은 소설 「홍길동전」 이외에도 직접적인 사회 비판을 시도하기 위해 「호민론(豪民論)」, 「유재론(遺才論)」, 「관론(官論)」, 「정론(政論)」, 「병론(兵論)」, 「학론(學論)」 등을 저술하였다. 특히 하늘이 재능 있는 사람을 내었는데 사람이 문벌과 과거로써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유재론」에서는 부당한 신분제도와 서얼차별을 비판하였다.

유재론(遺才論)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과, 함께 하늘이 맡겨 준 직분을 다스릴 사람은 인재(人才)가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다. 하늘이 인재를 태어나게 함은 본래 한 시대의 쓰임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인재를 태어나게 함에는 고귀한 집안의 태생이라 하여 그 성품을 풍부하게 해주지 않고, 미천한 집안의 태생이라고 하여 그 품성을 인색하게 주지만은 않는다. 그런 때문에 옛날의 선철(先哲)들은 명확히 그런 줄을 알아서, 더러는 초야(草野)에서도 인재를 구했으며, 더러는 병사(兵士)의 대열에서 뽑아냈고, 더러는 패전하여 항복한 적장을 발탁하기도 하였다. 더러는 도둑 무리에서 고르며, 더러는 창고지기를 등용했었다. 그렇게 하여 임용한 사람마다 모두 임무를 맡기기에 적당하였고, 임용당한 사람들도 각자가 지닌 재능을 펼쳤었다. 나라는 복(福)을 받았고 다스림이 날로 융성하였음은 이러한 도(道)를 써서였다.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는 큰 나라로서도 혹시라도 그러한 인재를 놓칠세라 오히려 염려하여, 근심 많은 듯 앉거나 누워서도 생각하고 밥상 머리에 앉아서도 탄식했었다.
그런데, 어찌해서 산림(山林)과 초택(草澤)에서 보배스러운 포부를 가슴에 품고도 벼슬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며, 영특하고 준수한 인재들이 지위 낮은 벼슬에 침체하여 끝내 그들의 포부를 시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있는가! 정말로 인재를 모두 찾아내기도 어렵고, 쓰더라도 재능을 다하도록 하는 일은 또한 어렵다.
우리나라는 땅까지 좁아, 인재가 드물게 나옴은 옛부터 걱정하던 일이었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인재 등용하는 길이 더욱 좁아져, 대대로 벼슬하던 명망 높은 집안이 아니면 높은 벼슬에는 오를 수 없었고, 암혈(巖穴)이나 띳집에 사는 선비라면 비록 기재(奇才)가 있더라도 억울하게 쓰이지 못했다. 과거 출신(科擧出身)이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없어, 비록

덕업(德業)이 매우 훌륭한 사람도 끝내 경상(卿相 판서나 정승)에 오르지 못한다. 하늘이 재능을 부여함은 균등한데, 대대로 벼슬하던 집안과 과거 출신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니 항상 인재가 모자람을 애태움은 당연하리라. 예부터 지금까지 시대가 멀고 오래이며, 세상이 넓기는 하더라도 서얼(庶孼) 출신이어서 어진 인재를 버려두고, 어머니가 개가(改嫁)했으니 그의 재능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니, 어머니가 천하거나 개가했으면 그 자손은 모두 벼슬길의 차례에 끼지 못한다. 변변찮은 나라로서, 두 오랑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으니, 모든 인재들이 나의 쓰임으로 되지 못할까 오히려 염려하더라도 더러는 나라 일이 구제될지 예측하지 못한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이 그러한 길을 막고는 자탄하기를, "인재가 없군, 인재가 없군."하니, 월(越) 나라로 가면서 수레를 북쪽으로 돌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이웃 나라에 알리지 못할 일이다. 한 사내·한 아낙네가 원한을 품어도 하늘은 그들을 위해 감상(感傷)하는건데, 하물며 원망하는 남정네·홀어미들이 나라 안의 절반이나 되니, 화평한 기운을 이루는 것은 또한 어려우리라.
옛날의 어진 인재는 대부분 미천한 데서 나왔다. 그 시대에 우리나라의 법을 사용했다면, 범 문정(范文正)은 정승의 공업(功業)이 없었을 것이고, 진관(陳瓘)·반양귀(潘良貴)는 직신(直臣)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사마양저(司馬穰苴)·위청(衛靑)과 같은 장수, 왕부(王符)의 문장(文章) 등은 끝내 세상에 쓰이질 못했으리라. 하늘이 낳아주셨는데 사람이 그걸 버리니, 이건 하늘을 거역하는 짓이다. 하늘을 거역하고 하늘에 빌어 영명(永命)할 수 있던 사람은 없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하늘을 받들어 하늘의 뜻대로 행한다면 경명(景命)을 또한 맞이할 수 있으리라.

14. <보기>에서 조선 전기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무위사 극락전	ㄴ. 법주사 팔상전
ㄷ. 금산사 미륵전	ㄹ. 해인사 장경판전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

14. 정답 ①
ㄱ. 무위사 극락전은 1430년(세종 12년)에 목조로 만들어진 것으로, 조선 초기의 주심포(柱心包) 양식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ㄹ. 해인사 장경판전은 고려시대 제작된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로 장경판고라고도 불리는데,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가야산 중턱에 자리한 해인사에 위치한다. 기록에 따르면, 1481년(성종 12년)에 고쳐짓기 시작하여 1488년(성종 19년)에 완공되었다.
ㄴ, ㄷ.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은 17세기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15. 고려와 조선의 지방 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선에서 지방관은 행정·사법권을, 별도로 파견된 진장·영장은 군사권을 보유하였다.
② 고려에서 상급 향리는 과거 응시에 제한을 두지 않아 고위관리가 될 수 있었다.

③ 조선에서 지역 양반은 유향소를 구성하여 향리를 규찰하고 향촌 질서를 바로잡았다.
④ 고려의 지방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과 파견되지 않은 속현으로 구성되었다.

15. 정답 ①
진장(鎭將)·영장(營將)은 지방 군대를 통솔하는 정3품 당상직 장관(將官)을 말한다. 1627년(인조 5년)에 설치되었다. 이들은 모두 '겸직(兼職)'으로서 중앙은 판관(判官)이나 중군(中軍) 및 경기 일원의 부사·목사가 겸임하였고, 각 도는 수령(守令)이 겸하였다. 즉 진장·영장이 '별도로' 파견된 것이 아니라, 행정·사법·군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방관이 진장·영장을 겸하였다.

16. <보기>의 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각 군사 사절단은 일본국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하였다. (중략) 앞의 3대국은 조선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세코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① 이 선언에서 연합국은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다.
②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이 모여 회담을 한 후 나온 선언이다.
③ 소련은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할 것을 결정했다.
④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20~30년간의 신탁통치안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16. 정답 ②
'조선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세코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결의를 한다(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뒤인 1943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수상, 중국의 장제스[蔣介石] 장군 등 연합국 수뇌가 이집트의 카이로에 모여 전후 처리에 관해 협의한 뒤 발표한 「카이로 선언」의 일부이다.
① 연합국이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선언은 1945년 7월의 포츠담 선언이다.
③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할 것을 결정한 회담은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이다.
④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20~30년간의 신탁통치안을 처음으로 제안한 회담은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이다. 다만 이것은 얄타회담 중 비공식 토론에서 루즈벨트와 스탈린의 대화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17. <보기>의 북한정권 수립 과정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성립
ㄴ. 조선인민군 창설
ㄷ. 토지개혁 실시

ㄹ.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 ㅁ. 북조선노동당 결성 ㅂ.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립

①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② ㄱ - ㄷ - ㅁ - ㄴ - ㄹ - ㅂ
③ ㄱ - ㅁ - ㄷ - ㄹ - ㄴ - ㅂ
④ ㄱ - ㅁ - ㄴ - ㄷ - ㄹ - ㅂ

17. 정답 ②

ㄱ.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성립(1946. 2)
⇩
ㄷ. 토지개혁 실시(1946. 3)
⇩
ㅁ. 북조선노동당 결성(1946. 8)
⇩
남조선노동당 결성(1946. 11)
⇩
북조선 인민 위원회 수립(1947. 2)
⇩
ㄴ. 조선인민군 창설(1948. 2)
⇩
ㄹ.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1948. 8)
⇩
ㅂ.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립(1948. 9)

18. <보기>의 왕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나라 안의 여러 주군에서 세금을 바치지 않으니, 창고가 비고 나라의 쓰임이 궁핍하였다. 왕이 독촉하자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같이 일어났다. 이에 원종, 애노 등이 사벌주(상주)에 의거하여 반란을 일으키니, 왕이 나마 벼슬의 영기를 시켜 사로잡게 하였다.

『삼국사기』

① 관직과 주현의 이름을 중국식 한자로 바꾸었다.
② 귀족과 관리에게 주던 녹읍을 폐지하였다.
③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 청해진을 세웠다.
④ 위홍 등이 향가를 모아 『삼대목』을 편찬하였다.

18. 정답 ④

자료의 사건은 원종·애노의 난(889)으로, 진성여왕 재위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이 시기에 각간 위홍과 대구화상이 향가를 모아 「삼대목」을 편찬하였다(889).

① 관직과 주현의 이름을 중국식 한자로 바꾸는 한화정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왕은 '경덕왕'이다.
② 귀족과 관리에게 주던 녹읍을 폐지한 왕은 '신문왕'이다.
③ 장보고가 청해진을 세웠을 때의 왕은 '흥덕왕'이다.

19. <보기>의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왕은 당이 내분으로 어지러워진 틈을 타서 영토를 넓히고,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다시 동경으로 옮겼다. 또한 대흥, 보력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① 산동지방에 수군을 보내 당을 공격하였다.
②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③ 전륜성왕을 자처하고 황상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④ 동모산에 나라를 세웠다.

19. 정답 ③
수도를 '중경→상경→동경'의 순으로 천도하였으며, '대흥, 보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왕은 발해 문왕(737~793)이다. 불교식으로 지은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이라는 문왕의 존호 중 '금륜(金輪)'과 '성법(聖法)'은 불교의 전륜성왕(轉輪聖王) 이념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문왕은 전륜성왕 이념을 이용해 왕권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문왕은 황상(皇上)이라는 칭호를 써서 황제국의 면모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① 산동(산둥) 지방에 장문휴가 이끄는 수군을 보내 당을 공격한 왕은 '무왕'이다.
②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린 왕은 '선왕'이다.
④ 동모산에 나라를 세운 왕은 '고왕'이다.

20.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재신(宰臣)으로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을 지변재상(知邊宰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전쟁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일들을 참으로 다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에 와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정부는 한갓 헛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습니다.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 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하(判下)나 비빈(妃嬪)을 간택하는 등의 일까지도 모두 여기를 경유하여 나옵니다.
『효종실록』

① 대원군에 의해 기능이 강화되었다.
②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③ 붕당정치의 폐단을 막기 위해 설치되었다.
④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16세기 초 상설기구로 설치되었다.

20. 정답 ②

자료 중 '지변재상'이 발전한 것이며, 명칭이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기구였다는 내용을 볼 때 <보기>가 설명하는 기구는 '비변사'이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외적의 침입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을 포함하는 원로 재상들과 병조, 국경 지방의 주요 관직을 역임했던 인물들을 불러 군사 대책에 대해 협의했다. 성종의 재위기 이후 이들을 지변사재상(知邊事宰相) 또는 지변재상(知邊宰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1510년(중종 5년) 3포 왜란이 발생하자 지변재상을 긴급하게 소집해서 왜구에 대한 방어 대책과 왜란의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 운영했던 지변재상의 논의와 합의 체제를 고쳐 '비변사'라는 임시 기구를 설립했다.

① 비변사는 조선 후기 내내 최고 정무 기관으로 유지되다가 흥선대원군의 개혁으로 폐지되었다.

②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의정부 및 6조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④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된 것은 1555년(명종 10년)에 발생한 을묘왜변 이후이다. 즉 '16세기 초'가 아니라 '16세기 중엽'에 상설기구가 되었다.